

MG 호남새마을금고  
창립 41주년 및 도남지점 이전 기념 특판  
정기예탁 **2.3%** (기초금리 1년 2.2% + 총차 500만원 입금시 0.1% 우대)  
보통 064.755-6400 | 정기 064.744-6300 | 도남 064.751-6800

# 한라일보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한라포커스 제주 떠나는 도내 간호사들 “어쩌나”

## 근무환경 열악·낮은 임금 “못버텨”

도내 3개 간호대학 졸업생 중 절반 이상 도외로 신규 채용 적는데다 현직까지 이탈 악순환 지속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용역… 대책 마련 착수

높은 업무강도에 열악한 처우로 간호사들은 병원을 떠나고, 병원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선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제주를 떠나 취업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내 간호사들의 이탈 실태와 제주도의 ‘간호인력 처우개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과 과제를 짚어봤다.

▶간호사들의 이유 있는 ‘탈제주’=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뢰·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간호대학 3곳 졸업자는 매해 300여명 이상, 전체 취업률은 약 90%를 보이는 반면 이들의 절반 이상이 제주를 떠나고 있다.

도내 병원으로의 취업률은 2018년까지 50% 선을 유지하다 2019년 37.9%로 떨어졌다. 도외 병원은 53.8%, 서울 병원 23.1%의 취업률을 보였다.

도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도의 병원으로 취업하는 이유를 묻은 결과, 절반 가량이 ‘임금 수준’을 꼽았으며 근무환경 및 노동강도가 뒤를 이었다. 간호사들의 이직률 분석 결과 병원 입사 4년 이내에 절반(57.2%)이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외 병원 간호사의 임금 격차를 비교한 결과 적게는 수백만원, 연차가 올라갈수록 수천만원의 연봉 격차가 나타났다.

▶매달 적립금 지원… 도의 유출 막는다=제주도는 도내 병·의원에 3년 또는 5년 이상 재직하는 간호사에게 매달 적립금을 지원하는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의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 통장’을 대안으로 내놨다.

도내·외 병원의 임금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도내 간호인력 보유율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특히 간호인력 처우개선은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 통장’은 가령 매달 81만원을 적립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27만원을 내면 사업자가 13만5000원, 도가 40만5000원을 지원해 5년 간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방식이다.

도내 대학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를 묻은 결과 87%가 가입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관계기관 대상 공청회, 의견수렴 및 공문화 과정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간호인력 처우개선 타당성 심의를 제출했다.

도는 올 상반기 중 통보될 심의 결과에 따라 조 세례 개정, 관련 예산 확보 등 제도 정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처우 개선 지원을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예산은 초기 3년간 80억에서 90억여원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제도 추진 시 병원급 3교대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읍면지역 의원급 간호인력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 통보될 심의 결과에 따라 조 세례 개정, 관련 예산 확보 등 제도 정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처우 개선 지원을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예산은 초기 3년간 80억에서 90억여원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제도 추진 시 병원급 3교대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지원을 우선 실시하고 이후 읍면지역 의원급 간호인력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파란 바다 위를 훨~훨... 파라세일링 초여름 날씨를 보인 31일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모터보트의 힘을 빌려 낙하산으로 하늘을 나는 파라세일 체험을 하고 있다.

##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시동’도, 지하수 펌프 가동시간측정기 설치 시범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하수 펌프 가동시간 측정기 설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도내 염지하수를 개발해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을 대상으로 염지하수 누적 사용량을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염지하수 취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시간당 염지하수 이용량으로 환산한 후 사용 누적량을 산정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성과가 높을 경우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도내 모든 양식장을 대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고품질 감귤 생산 위해 지원 확대를” 한라일보·(사)제주와미래연구원 공동기획 토론회

제주의 주 소득 작물인 감귤이 기후 위기에 더해 외국 및 타지역 작물과의 경쟁구도에 놓여 있다. 하우스 감귤의 경우 대부분 시·군에서 재배가 이뤄지면서 생산량도 상당한 상황이지만 제주지역은 몰류비, 인력수급난 등 취약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품질 감귤 생산’을 목표로 농업인 대상 지원책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공동기획의 일환으로 ‘기후 위기 속 제주 농업, 전략은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25일 제주와미래연구원 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훈 제주한라대학교 환경원예과 교수(전 감귤연구소장),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후위기가 제주 농업에 미치는 영향 ▷감귤 대체 작물 등 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장기 플랜 구축 여부 ▷기후위기 속 농가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토론회에선 제주지역 농가가 대부분 고령화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는 반면 농업 경영비, 몰류비 등 지출 부담은 상당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후위기로 하우스감귤뿐 아니라 노지감귤도 타 지역에서 재배될 수 있어, 감귤 경쟁력 확보 및 대체 작물 재배 등 대안 마련이 요구됐다.

최영훈 교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령층이 많은 만큼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고 청정 제주라는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원은 “감귤은 무엇보다 고품질 감귤 생산이 우선”이라며 “생산·유통·판매 분야에서 각각 인력수급, 몰류비 지원, 안정적 판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옛 제주읍성 동문 밖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추진

도, 올 연말까지 타당성 검토

옛 제주읍성 동문 밖 일대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남아 있다며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공간연구원 이 추진하는 ‘2021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조사 대상에 옛 제주읍성 동문 밖 주변 일대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공모 사업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조사 대상을 상대로 연구 용역을 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최종 지정 여부를 가릴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사행 행위 영업, 식품접객업 등 건축자산 진흥 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행위나 시설 설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옛 제주읍성 동문 밖 일대에 동문 흔적과 옛길 흔적이 남아 있다며 역사·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설명했다.

도는 올 연말까지 옛 제주읍성 동문 밖 일대를 상대로 연구용역을 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창민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제주의 건축자산 정책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이 지역은 도시재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정된 신산머루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과 중첩돼 있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039  
31일 18시 기준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2021 제주신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 더 탐나는 적금3

### 탐나는 이율로 목돈을 모으는

3년제 최고금리

# 연 3.0%

계약기간	기본이자율	우대금리	최고금리
12개월 만기	1.10 (0.90)		최고 2.60 (2.40)
24개월 만기	1.30 (1.10)	최고 1.50	최고 2.80 (2.60)
36개월 만기	1.50 (1.30)		최고 3.00 (2.80)

※ ( ) 안의 금리는 자유적립식 금리임 ※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를 적용

우대이자율 : 아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1.5%p 우대

1) 은행거래 우대이자율 : 최고 0.5%p 우대

-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50만원이상 급여이체(※) 실적 보유 고객
-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카드 가맹점대금 이체실적 보유 고객
- ※ 계약기간의 1/20이상 실적 보유 시 우대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체실적 인정 기준은 이 예금의 신규일 이후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까지로 합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지급합니다.

※ 계좌에 입출금 등 이 통행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상가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 또는 제주은행 홈페이지(www.e-jejubank.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결 제2021-02-060(심의일자 2021. 04. 13) [유효기간 : 2021. 04. 13 ~ 2021. 12. 31]

2) 제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차등 우대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합산 사용 실적 월 30만원 이상 : 0.6%p 우대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합산 사용 실적 월 10만원 이상 : 0.3%p 우대
- ※ 계약기간의 1/2이상 사용 실적 보유시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며, 사용실적 인정 기간은 이 예금의 신규일 이후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까지로 합니다.(신용카드 매입일 기준)

3) 제주은행 신규 거래 고객 및 “더 탐나는 적금1, 2” 가입 이력 고객 0.3%p 우대

-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신규일 전일까지 적립식예금, 가치실적예금 (양도성예금, 표지어음 포함), 수익증권(MMF 포함), ISA계좌 보유 이력 없는 고객
- “더 탐나는 적금1, 2” 만기 고객이나, 만기경과 고객, 3개월 이내 만기도래 고객

4) 모바일(BANK, 모바일 웹 뱅킹) 신규로 가입시 0.1%p 우대

주1) 급여이체 인정기준

- 당월 급여이체 : 당월 청구(급여이체 기록코드 등록)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메뉴를 통하여 입금 실적 이 건당 50만원이상 이체되는 경우
- 타행 급여이체 : 타행,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거래계좌로 급여, 월급, 봉급, 상여, 상급, 성과급, 근로, 보너스, 보로금, pay, bonus, salary 등으로 표시되어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이상 이체되는 경우
- 타행, 전자금융 등을 통하여 지정급여일 ±1영업일내에 입금실적이 건당 50만원이상 이체되는 경우

• 중도해지 이자율 및 만기후 이자율을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양도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계좌분할 및 일부해지 : 불가능

• 비교제품합적 : 가능

※ 비교제품합적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까지의 이자는 비교제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당신의 제주! 당신의 은행! **제주은행**